지역 **메 아 리**

정읍시,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신청하세요'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농어촌지역에 거 주하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 조 지원 시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업은 저소득 농어촌지역 장애인들 의 생활편의 제공과 이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유형에 맞는 주거편의 시설 확충 과 주택개조를 지원하는 주거환경개선사 업이다.

대상자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중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소득(2018년 기준 4인 가구 5.846,903원) 이하인 장애인 가구이다. 정읍 시에서는 가구당 380만원 이내의 주택 편 의시설개・보수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화장실 개조와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와 개보수사업을 받게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주거급여 수 선유지시업 등 유시한 주거환경 시업을 지 원 받은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대주택에 거주 하는 장애인은 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지 원이 가능하다.

사업신청과 관련 궁금한 시항은 정읍시 청 건축과 주거복지팀(063-539-5887)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민의 장' 수상자 선정

정읍시는 지난 17일 정읍시민의 장 심 시위원회를 열어 2018년 정읍시민의 장 8개 부문 중 3개 부문에 3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문화장 김호문(76)씨, 체육장 송현철(56)씨, 효열장 서한석(56)씨가 영 광의 주인공들이다.

정읍시민의 장은 '정읍시민의장 조례'에 의거하여 매년 심사 선발하는 정읍시최고 권위의 상으로 지난 8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26일간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추천을 받은 결과총 7개 부문에 15명(문화장 2명, 새마을장 1명, 산업장 1명, 공익장 5명, 체육장 3, 애향장 1명, 효열장 2명)의 후보자가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시는 접수된 시민의 장 후보자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위해 후보자별 공적내용 에 대한 철저한 현지 사실조사를 마치 고, 심사위원회는 1차 부문별 심사와 2 차 전원위원회의 심사를 엄격하고 공정 하게 실시하여 부문별 수상자를 선정했 다. 심사위원회는 덕망이 높은 지역인사 30명으로 구성되었으나 이날 위원회에는 24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농생명식품산업 육성 '박차'

고창군, 농촌진흥청 특산자원 융복합 사업 최종 선정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농촌진흥청 에서 추진하는 '특산자원 융복합사 업 대상지로 최종선정 됐다고 18일 반형다

'특산지원 융복합시업'은 농촌진흥 청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전 국 5개소에 10억원의 예산으로 R&D 연구개발 기술과 농업·농촌지원을 연계한 융복합 기술지원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특산품을 육성 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내년에 처음 의욕적으로 추진하 는 신규 사업이다.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한 이번 사업에서 고창군은 2차에 걸 친 전문가의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서 최종 선정됐다. 고청군은 청보리밭 축제와 보리재배 최적지라는 모양성의 스토리텔링, 블랙보리 등 기능성 보리가 가장 많이 재배되는 보리와 전국 2위의 재배면 적, 미네랄이 많은 황토에서 재배되어 탁월한 당도와 맛을 지랑하는 고구마, 그리고 고창식품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복분자 등의 대표 특산자원이 있다. 이런 특산자원을 바탕으로 보리, 고구마, 복분자를 이용한 선식, 관광형 착한빵, 그리고 음식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 사업선정은 농생명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치를 내걸고 민선7기를 이끌고 있는 고창군에희망과 미래를 밝혀주는 마중물 사업

고창은 연 7백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이다.

농촌형 문화관광지로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은 많으나, 입을 즐겁게 하는 먹거리까지 보완할 수 있도록 특산지원 융복합 사업을 통해 고창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관련제품의 국내 시장 규모 확대를 통 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 으로 전망된다.

유기상 고청군수는 유네스코지정 생물권보저지역에서 생산된 고창의 대표 농산물인 보리, 고구미, 복분자를 잘 융합하여 백년대계 안심먹거리 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군정의 양 축인 농생명식품산업과 문화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고창의 1000년 미래를 밝혀줄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지역경제 위한 재정집행 '총력'

예산집행 쏠림 현상 방지

이월 · 불용예산 최소화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한 시책사업 역점 추진과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 해 18일 전병순부군수 주재로 '2018년 하반기 재정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연도말 예산집행 쏠립 현상을 방지하고 이월·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부서별하반기 재정집행 추진실적, 부진 사업별 원인 분석 및 집행률 제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부안군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재 정집행추진단 을 구성하는 한편 행정 자치부의 재정집행률 목표인 84%를 상회하는 91% 달성을 목표율로 정하 고 전 부서가 재정집행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 재 3,868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58.62%의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말까지 재정집행 목표액 6,004억원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전병순 부군수는 "하반기 지역경제 활력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 정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부서별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달라"고 당부 했다.

부안군은 이번 지방재정집행 대책 보고회를 통해 추진이 미흡한 사업에 대한 점검과 내수경기 활성화와 다양 한 일자리창출 등 정부 정책기조에 맞는 신속한 재정집행이 되도록 힘쓴 다는 방침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한반도 첫 수도' 위상 높여가자

고창군 화합과 자긍심의 한마당 '군민의 날' 기념식 성료

고창군민들의 화합의 자긍심의 한마당인 '제57회 고창군민의 날'기념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지난 17일 오후 고창읍성 특설 무대에서 열린 '제57회 고창군민 의 날'은 유기상 고창군수, 조규 철 군의장, 유성엽 국회의원, 성 경찬・김만기 도의원, 군의원과 기관사회단체장, 김광중 재경군 민회장, 이익희 재전군민회장, 김기동 재광군민회장과 재외군 민, 군민 등2천여명이 참석한 가 유데 열렸다.

고창군에서는 선조들의 자랑스 러움을 되새기고 고창군민의 화합과 단결, 미래의 발전을 다짐 하기 위해 매년 음력 9월 9일을 '고창군민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국악예술단 '고창'의 공연으로 시작된 기념식은 국민의례, 내빈 소개, 군민헌장 낭독 순으로 진 행됐다.

특히 이날 고창의 명예와 자긍 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 헌하여 '군민의 장'을 수상한 문 화체육장 김상휘, 산업근로장 김 원봉, 애항장 오성택, 공익장 최 경선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도 함 께 개최됐다.

문화체육장을 수상한 김상휘씨는 고창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인천강 모래톱 사람들', '부엉이', '서울부엉이' 등 고향을 소재로 소설을 저술하여 문화의 도시 고창의 문학적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했고, 고창의 문화와 향토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로 고

창출신 문화예술인의 위상을 드 높였다.

산업근로장을 수상한 김원봉씨는 해리면에서 제재소를 운영하면서 고창군의 제재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고창인으로서의 사명감으로 지역의 목재를 원료로 사용하면서 산립과 연계된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공익장을 수상한 최경선 법만 스님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 운사 주지로 재임하는 동안 복 지, 문화, 환경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의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

정읍시(시장 유진섭)와 전국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이권로)은 18일, 2018년 정읍시

공무직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공무직노동조합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정읍시(시장 유진섭)와 전국공무직 노동조합(위원장 이권로)은 18일, 2018년 정읍시공무직노동조합 단체협 약을 체결했다.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정읍시지부는 정읍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근 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동안 2년 주기로 근로자의 복리후생 등의 근로 조건에 대해서 정읍시와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다.

금번 단체협약은 지난 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시작으로 20여 차례교섭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수정수용조항 41개항 신설조항 28개항등 총 11장 제108개항(부칙8개항)을합의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장기재직휴가, 가족돌봄휴가, 임신부 긴급보호휴가 등을 신설했다. 또한 조합원의활발한 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시간 부여, 징계위원회 구성 시 조합 측 추천 인 사로 징계위원 선임 등의 조항개정에 합의했다.

유 시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최일선에서 공무지의 권익신장, 복지증진과 건강하고 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에 노력해 준 노동조합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과 협업으로 노동조합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권로 위원장은 "시장님이하 교섭위원들의 노력으로 오늘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고 이번 단체협약으로 근무환경이 개선되는 만큼 조합원들도 시와 시민들에 대한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

한편,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정읍시지 부는 2012년 3월에 설립되었으며, 현 재 조합원수는 280여명이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 행안면, 수확철 현장행정 본격 추진

부안군 행안면은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들녘마다 추수에 한창인 현장을 방문해 농가들을 격려하고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등 숨쉬는 소통행정을 펼치고 있다.

특히 금년 농사는 잇따른 태풍과 호우, 장기간 지속된 기록적인 폭염 등으로 병충해가 발생하는 등 벼 수 확량이 크게 감소해 농가의 시름이 많은 해이기도 하다.

이에 벼 베기 현장을 방문한 이영 흔 행안면장은 여름철 극심한 기상 악화로 어려운 영농여건에서도 값진 결실을 거두고 있는 농가들을 격려 하며 농가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추수활동이 잘 마무리 될



때까지 영농현장을 일일이 방문해 행정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 다. /부안=이옥수 기자

